

## 【 해외금융뉴스: 복미 】

## 미 행정부, 홍수보험에 대한 풍해담보 추가 반대

- 오바마 행정부는 홍수보험프로그램(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)에 풍해담보를 추가하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.
  - 홍수보험프로그램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장하는 연방프로그램으로서 지난 2004년, 2005년 발생한 거대 허리케인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음.
  - 제도보완을 위한 입법안이 상정되었으나, 풍해담보 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았으며, 상원과 하원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은 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  - 한편, 미 행정부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홍수보험프로그램의 부채 탕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.
  -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연방프로그램에 풍해담보가 추가될 경우 풍해담보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으며, 미국 손해보험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힘.
  
- 홍수보험프로그램에 풍해담보를 추가하자는 주장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풍해로 인한 피해 보상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대두되었으나,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.
  - 2005년 8월 미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보험사들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바람이 아닌 홍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보험금 지급요구를 홍수보험프로그램에 전가했다고 비난함.
  - 하원의원들은 몇몇 지역에서 풍해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보험프로그램에 풍해 담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회계감사원(General Accounting Office)은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.
  - 정부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편지에서 당국자는 민간부문과 주정부에 의해 가입이 가능한 보험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확대에는 반대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힘.

(Washington Post, 5/13)